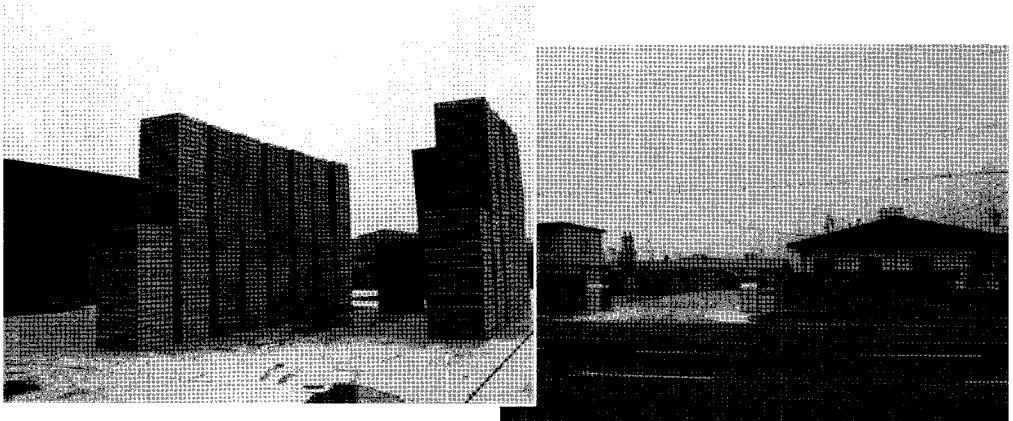


# [업계소식]

## ◆ (주)신영목재,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다 전북 군산 농공단지로 이전하여



(주)신영목재가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찾아간다.

산업용 물류기기인 목재 파렛트, 포장 BOX, 제재목 등의 생산과 유통, 북미, 남미 등지에서 특수원목 및 Timber를 직수입하는 (주)신영목재는 전북 군산소재 농공단지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지역개발에 맞춰 새만금 군장 산업단지 4,000평 부지 위에 파렛트 공장, 원목 야적장, 열처리 설비 등을 일원화하여 7월 1일자로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주)신영목재는 설비 일원화로 발생한 시너지 효과를 소비자에게 보답하고자 보다 좋은 품질과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다가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신영목재는 고객의 가치추구를 만족시키는 종합 물류기업으로 고품질의 특수목 공급으로 산업발전과 목조주택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의 이사로서 목재업계 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목재업계의 핵심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 로지스올 합자회사, 중외운중력 창립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6월 28일 중국 소주에서 기념행사 열려



지난 6월 28일 중국 소주에서 중외운중력국제화운유한공사의 창립 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합작 파트너인 화동 SINOTRANS, 삼성전자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외운중력은 로지스올, SINOTRANS, 순항통의 합자회사로 지난 2005년 6월28일 소주 삼성전자와 LCD사업장의 통합물류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고속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매출 규모면에서 보면 2006년 12억, 2009년 83억, 운영차량 초기 13대에서 현재 100여대, 직원은 19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해 나아가 중국물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외운중력국제화운유한공사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 영림목재 Members (주)e · 라이브러리 이웃사랑물품 기탁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정치)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주)e·라이브러리(대표:김인호)로부터 원목 책상과 책장 등 129점의 가구(100,201,800원 상당)를 지원받아 장애우, 노인, 어린이 복지시설 등 80개처에 전달하였다.

김인호 대표는 “이번에 지원된 책상과 책장을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어 꿈과 희망을 키워 가시기를 바라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 경인방송 인터뷰

나무야 말로 지구상에서 지속경영 가능한 자재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이사는 지난 6월 4일 인천지역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경인방송에서 진행되는 ‘김경욱의 라디오 상담실 - 파워인터뷰’ 코너에 출연, 회사의 전반적인 소개와 목재산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방송은 경인방송 라디오 FM 90.7MHz에서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경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국산재의 특징과 국내산 목재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목재사용을 장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경호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우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녹색산업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선정할 바 있다. 녹색산업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 전기차등 환경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목재, 나무야말로 지구상에 파서 써버리는 석유나 비철금속과 달리 지속경영 가능한 자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는 자라고 있다. 또한 환경면에서도 목제품이 우수하다. 예컨대 40평 목조주택이 저장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중형승용차가 지구 한 바퀴 주행사 배출량과 맞먹는다. 그러므로 청취자 여러분도 나무를 많이 이용해주시 바란다”며 당부했다.

###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부회장에 이경호 대표 피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이전제)가 이사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했다.

총연합회는 당초 구성안대로 △목재위원회 △목재문화교육위원회 △목조기술위원회 바이오매스연료 위원회 △목재재활용/목재칩 위원회로 분과를 나누기로 했으며, 각 분과 이사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 한국목재공학회 김태인 부회장, 한국목조건축협회 이정현 회장, 한국임산물연료협회 이석운 회장, 한국목재집연합회 최원규 회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5명의 이사를 두고 이중 부회장으로 이경호 이사장을 추대해 향후 2년간 역임키로 했다.

### ◆ (주)골드라인 이흥기 회장 ‘자랑스런 복성인상’ 수상

35회 복성인 한마음 내축세  
 일시: 2010. 4. 25(월) 09:00  
 장소: 무궁화동(우천시 체육관)  
 주최: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광주지방중 제29회 총장회



광주북성중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재근)는 올해 '자랑스런 북성인상' 수상자로 김영석(9회) 유탄엔지니어링 부회장과 이한일(10회) 광주시 경제담당특별보좌관, 이흥기(13회) (주)플드라인 회장, 김관재(16회) 변호사, 박종균(22회) 광주 동구의원 등 5명을 선정했다.

또 공로패 수상자로 최종주(13회)·오경교(15회)·이광남(15회)·고광재(29회)·이동준(30회)씨 등 5명을, 감사패 수상자로는 김일광·장현주·문범·성종호(이상 29회)씨 등 4명을 선정했다.

시상은 지난 4월 25일 북성중 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북성인 한마음 대축제'에서 개최되었다.

## ◆ 용마로지스(주), 창립 27주년 기념식



용마로지스(주) 창립 27주년 기념식이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30분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20년, 10년 근속), 공로상 시상과 감사패 전달을 하며 창립 27주년을 축하하였다.

이원희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용마의 역사는 불가능에 도전해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의지의 스토리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줄 것과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며 부단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2010년 물류 컨설팅지원사업 대상 선정

용마로지스,에코비스(YE Logis, Yongmalogis&Ecovice Logis)- 한국알미늄(주) 등 9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확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 동안 자가물류를 운용해온 9개 화주기업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물류아웃소싱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5월 25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MRO코리아(삼영물류)와 에스에너지(대한통운) 등 9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에이스디지털((주)세방), 한국바스프(주)(조양국제종합물류), (주)메디슨(한솔CSN), (주)세라젬(글로벌비스(주)), 코리아피티지(주)(한익스프레스(주)), 한국알미늄(주)(YE Logis), (주)우양냉동식품((주)케이엔엘물류) 등 7개 지방화주 기업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자가·자회사물류를 아웃소싱하기 위한 화주기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10개, 2009년 9개 화주기업을 지원하여 각각 720억원, 900억원의 물류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 물류비의 약 13%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으로써 화주기업들의 물류아웃소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 ◆ 동아쏘시오그룹 신입사원 교육 수료식

용마로지스(주) 이원희 사장 등 대표이사진 대거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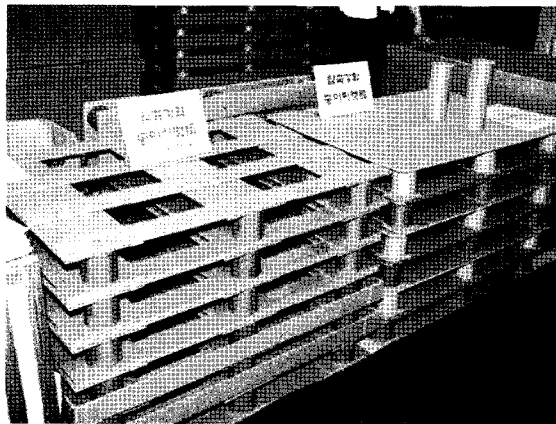
지난 6월 28일 동아제약 7층 대강당에서 동아쏘시오그룹 2010 대졸 신입사원 연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본 수료식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하여 용마로지스(주) 이원희 대표이사 등 각 그룹사 사장단이 참석하여 사령장 및 뺏지 수여식이 있었다.

강신호 회장은 수료식에서 “최근 동아제약이 영국의 글로벌제약회사인 GSK(GlaxoSmithKline)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에 관련하여 신입사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인재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신입사원교육의 경우 그룹사 통합으로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용마로지스의 경우 총 4명이 참석하였다.

## ◆ 성림화학, 2010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0) 출품



국내의 포장산업과 관련한 물류시스템 및 장비, 디자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0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0)'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0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0)'을 포함해 '제약,화장품 산업전', '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국제화학장치산업전' 등 총 4개의 전시회가 함께 진행됐다.

총 25개국 773개사가 참가했으며,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을 주제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 중 물류시스템 및 장비들이 대대적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전시회에서는 성립화학의 방수기술 도입과 견고함이 높아진 압축강화 종이파렛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유류대신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물류장비, 제품의 보관을 도와주는 각종 첨단 장비, 연비효율을 극대화시킨 물류시스템 등 수십개의 제품이 주목 받았다.

## ◆ 이견창호는 지배구조 개선기업'

주주 권리 보호, 경영 투명성 재고 등 인정받아



시스템창호 전문기업 이견창호(대표 박승준)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에서 '2010 지배구조 개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지배구조가 현저히 개선된 기업에게 수상하는 '지배구조 개선기업 시상'에서 이견창호는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운영 방식의 효율성, 적절한 경영 과실 배분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경영지원본부 전춘구 부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해부터 월별로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등 그동안 주주들의 이익 제고와 투명 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주중시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주중시 경영을 정착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 ◆ 이견그룹, 박영주회장과 이경봉 대표이사 경영에서 물러나 이견창호 박승준, 이견산업 이춘만 단독 체제 출범

이견그룹의 창업자인 박영주 회장(69)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세경영이 출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견그룹인 이견산업과 이견창호는 지난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이견산업의 단독 대표이사에 이춘만 대표이사를, 이견창호의 대표이사에 박승준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로써 박영주 회장과 이경봉 이견산업 공동 대표이사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견산업의 경우 박영주회장과 이춘만 대표가 그동안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박영주회장이 물러남으로써 이춘만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 된 것이다.

또 이견 창호는 박영주회장과 이경봉 대표이사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으나 두 사람이 이번에 한꺼번에 일선에서 물러나고 부사장으로 있는 박영주회장의 차남 박승준 부사장이 단독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승준 신임 대표이사는 1967년생으로 43세다.

이번 경영진 개편으로 이견그룹은 2세 경영체제를 본격 출범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승준 신임 대표이사는 이견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이견창호 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견창호는 모기업인 이견산업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 ◆ 한·중·일 3국의 막힘없는 물류 파렛트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13-14일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육상해상 복합운송 협정 가서명' 등 3국간 막힘없는 물류를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3국간 물류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도로 2006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8년 5월 일본 오카야마의 2차 회의를 거쳐 3번째로 개최된 이번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간 막힘없는 물류체계의 실현, 환경 친화적 물류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의 조화 등 물류협력 3대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화물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인 파렛트 재활용의 추진, 녹색 물류분야의 공동연구 강화, 삼국간 화물위추적 시스템 시범 사업의 추진 등 앞으로의 실천방안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의 물류분야 협력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파렛트에는 컨테이너 용기와 달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어 1회용 파렛트의 사용률이 99%를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파렛트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3국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구매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환경보호 효과로 녹색 물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0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를 대항하여 운영 중인 종합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9일(월)부터 2010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19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2주일 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0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2008년 8월 7일에 개정 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 '2010 글로벌 Logistics Security Trends' 세미나 성황리 개최



지난 6월 초 물류신문사는 500호 특집을 맞아 '2010 글로벌 Logistics Security Trends'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물류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물류보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 박영배 국제물류지원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이정운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물류보안 규제 동향의 이해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기조강연을 펼쳤다.

세미나의 주요 주제로는 '물류보안 인증획득을 위한 전략과 사례분석', '물류보안 기술 동향과 신기술' 등이 발표되었다.

## ◆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해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 하여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물류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처리토록 한다. △셋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였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이다.

## ◆ 무협, 중소기업 물류공동화 지원 사업 확대시행

공동물류 통해 물류비 평균 25% 절감 효과 나타나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010년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물류공동화 지원사업' 계획

과 지원기준 등을 확정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는 지난해 인천지역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원대상 업체 컨소시엄을 지난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컨설팅기간도 지난해 약 3개월에서 5개월(7월~11월)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각 컨소시엄은 5개 내외의 제조, 무역, 유통기업으로 구성되며, 자가 물류 의존도가 높고 물류공동화를 도모하는 중소 수출입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전문물류업체 및 전문물류컨설팅업체와 연계하여 물류공동화 유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 화주기업들은 물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업체당 평균 25% 정도의 물류비(5개 업체 총 12.3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 ◆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개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가 지난 7월 19일부터 2010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6월 21일 발표했다.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주일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0월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2008년 8월 7일에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

### AEO 인증지원 위한 컨설팅 협약체결

부산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AEO 인증지원을 위한 컨설팅 협약체결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

부산지역의 물류기업 지원을 주관하고 있는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동철)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5일, 8개 중소기업 및 컨설팅 업체와 물류운송 등에 관한 국제적인 보안 규정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지원을 위한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부산지역 항만물류 선도기업 5개 업체를 포함한 총 8개 업체로, 올해 12월 AEO 최종 인증을 목표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AEO 인증은 통상 4천~5천여 만 원의 비용이 들고 전문적인 서류작업에만도 3~4개월이 소요되는 등 기반체계가 취약한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과제로, 부산시와 센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지난 5월 희망업체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였다.

AEO 인증제도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테러 관련 여부에 대한 각국의 보안검사가 강화되면서 운송·통관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안된 제도로, 지난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각국의 합의로 제도 도입이 결정되어 올해까지 154개 WC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AEO 인증기업은 통관에서 물품검사가 생략되고 세무조사 및 재고조사 면제, 과태료 및 통고처분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과 상호인증을 앞두고 있어 인증기업들은 이들 국가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거래처간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제도의 특성상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2차 물류파트너들에게 AEO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물류기업으로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 ◆ 네덜란드 마리타임大 물류학과장, 아주대 특강

신설 물류경영공학과 발전 위해 긴밀한 협력 약속



아주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는 지난 6월 9일 네덜란드 마리타임 유니버시티의 물류학과장 모리스 안센(Maurice Jansen) 교수를 초빙, '유럽 물류의 현황과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 물류경영공학과(Department of Logistics Management Engineering)를 신설하고 2010년 2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설되는 물류경영공학과는 Global Logistics를 지향, CPIM(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인증과 외국어 배양프로그램에 무게 중심을 두게 된다. 또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시간공학 등을 중점 수업하게 되며 공항, 항만, 택배터미널, 유통터미널 등 현장교육을 매 학기 실시함으로써 현장 감각도 익힐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 ◆ 인천항, 동남아 물동량 확보 위해 "두팔걸어"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가 인천시청,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및 인천지역 하역사와 공동으로 총10명의 포트세일즈단을 구성,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국외합동 포트마케팅'을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포트마케팅의 주요 목적은 2009년 기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극동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



시아 시장의 선사와 잠재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항 홍보설명회 개최 및 배후단지 투자환경 소개”를 통해 인천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항 포트세일즈단은 동남아 지역과 인천항간 신규화주 및 물류기업 발굴을 통한 물동량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현지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물류기업, 선사, 화주,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인천항 홍보 설명회를 2회 개최(말레이시아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 인도네시아 6월 10일 오전 10시 개최)하여 인천항과 인천시의 개발계획과 물류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현지의 유력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항 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 국제물류실무 및 SCM 구축전략 워크샵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사공일)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무역업계 물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1박2일 동안 용인 이룸 연수원에서 ‘2010년 국제물류 실무 및 글로벌 SCM구축전략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물류클레임 사례와 대처법, 통관 및 관세 리스크 관리요령, 수출입 물류요금 체계의 이해와 물류비 절감방안, SCM구축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참석자들이 기업 물류 혁신 방안에 대해 분임토의를 갖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역협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6월, 그리고 앞으로 9월, 11월 연간 4회에 걸쳐 총 160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이며, 숙박비를 포함 제반비용을 무료로 제공한다.

## ◆ 기업 36% “녹색물류 전담 있다”

포장재 재활용 위한 역물류시스템 구축

운송차량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는 등 이른바 ‘녹색물류’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의 300개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녹색물류 실태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3.6%가 ‘녹색 물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녹색물류 전담팀이나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은 36.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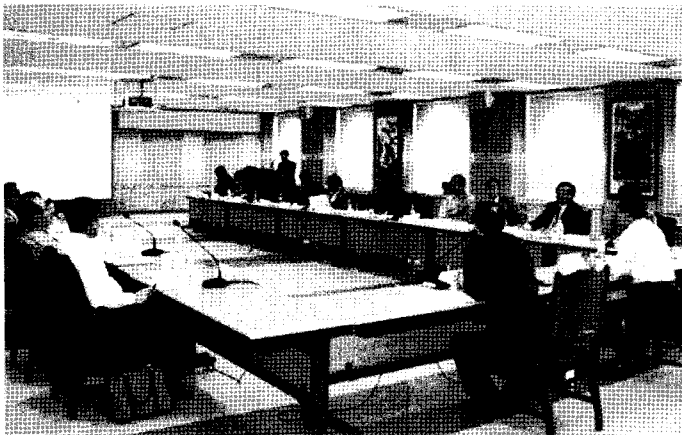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상의는 “2008년 12월 같은 조사(14.0%)에 비해 전담을 두고 있는 구성비중은 22.0%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며 “운송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51.0%는 ‘차량운영 효율화’를, 50.7%는 ‘원자재, 포장재 등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역물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44.3%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3.7%는 공동수배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운송방법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모달시프트(Modal Shift)’에 대한 관심은 10.3%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 ◆ 산림청, 목재산업 진흥에 팔 걸었다

5월 TF팀 구성, 10월 대책안 확정 목표





산림청은 지난 4월 22일 국내 목재산업 전문가 10인을 초청해 목재산업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논의하고, 지난 5월 4일 운영계획 및 분과 구성 등을 발표하는 Kick-off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2020년까지의 비전과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5개 분과(공급안정, 산업경쟁력, 이용활성화, 경제분석, 외국제도)를 두고 자문위원회가 대책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TF팀은 총 45명으로 팀장 1명, 자문위원 7명, 5분과 34명, 실무작업반 8명(중복 5명)으로 구성된다. 산림청 측은 5월 내 TF팀을 구성한 뒤 6월까지 분과별 작업 및 대책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7월까지 초안작성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 9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0월까지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TF팀을 통해 △업계별 원료조달현황 파악 및 수입동향 분석 및 전망 △목재이용실태 도식화 △목재산업 경제적 비중 및 시장 규모 파악 △생산성 분석 및 성장 잠재력 분석 △목조주택 현황 및 전망 △목제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제고 방안 △세계 목재 시장 동향 파악 및 정책 연구 △세계 목재 인증제 등 관련제도 현황 파악 △2020년 시장 규모 예측 등의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기업

녹색기업 출범식 및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 개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녹색경영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녹색기업 출범식이 지난 4월 14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녹색기업협의회가 주관한 '녹색기업 출범식 및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는 녹색기업의 홍보와 비전, 발전방안 등 녹색기업의 필요성과 이점을 소개하였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1995년부터 환경부가 운영해오던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녹색경영 기업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게 되었다.

녹색기업 출범식에서 환경부는 녹색기업 브랜드명과 CI를 새로이 발표하면서 녹색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추진전략을 밝히고, 187개 녹색기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의 적극 동참,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녹색기업 위상강화 노력 등을 비전으로 선포하는 등 기업 스스로 녹색경영의 참여의지를 다지게 하였다.

## ◆ 물류비를 간편하게 계산하자

### 국토해양부,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 무상 보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조·유통기업이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물류비 절감과 물류서비스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물류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 물류회계 프로그램(제조업, 유통업)은 화주기업의 복잡한 물류활동 규명, 기업물류비 소재 및 규모 파악 등이 용이하도록 정부 R&D사업으로 개발되었다.

기업 현장에는 물자 조달, 제품의 생산·판매 영역별로 수송·보관·하역·패키징 등 다양한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물류비가 기업회계 간접비에 일괄 계상되어 있으며 물류와 회계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별 물류비 관리수준을 고려하여 물류비 입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지역별 또는 지점별로 발생하는 물류

비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정에 필요한 표준적인 계산 절차 및 방법, 어려운 물류와 회계 관련 용어 해설, 물류비 산정사례 예시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갖 추고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ri.re.kr>) 오른쪽 상단에 '표준 물류회계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 이름, 회사명, 매출액, 업종, 연락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내 배너 또는 공지사항 등에 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많은 기업이 표준 프로그램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하여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